

# 일본 대학생의 주거의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cious of Housing by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정미란\*  
Jung, Mi Ran

안옥희\*\* 박병순\*\*\*  
An, Ok Hee Park, Byoung Soon

### I. 서론

주거의식은 주거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을 말하는데, 전통사회에서는 각 개인의 주거의식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대량공급되는 상품으로서의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 보다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의 주거의식에 맞는 주택에서 생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주택관련 회사와 연구자들이 소비자의 주거의식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거주자의 주거의식의 파악에 머물 뿐 미래의 주거문화의 변화에 대해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한 현대사회는 국제화 시대로 세계 각국의 주거문화가 빠른 시일에 널리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사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주거문화의 교류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의 주거문화를 파악하므로써 우리의 주거문화와의 인터페이스를 꾀하고자 한다. 먼저, 그 첫번째 시도로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거의식을 파악하므로써 앞으로의 주거문화

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연구는 설문지에 의한 조사연구로 수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일본의 대학생 315명이다. 조사시기는 1997년 5월부터 9월이며, 본 연구에 사용하는 설문지는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선행연구(주영애, 1986 ; 홍성희, 1983 ; 윤정애, 1993)를 참고로 하고 또한 본 연구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항목을 추가하여 제작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과거·현재·미래의 주택유형, 주택 이상상, 주거의 기능, 주택선택시 고려점 등이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WIN 7.5 프로그램을 이용, 빈도, 평균, 백분율,  $\chi^2$ -검증,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행하였다.

### III. 조사결과 및 논의

#### 1.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표 1>, 가족수는 평균 4.7인이며, 가족형태는 핵가족(69.3%)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특성에서 주생활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생활한다(68.8%)"가 많으며, 주거형태는 독립주택(81.1%)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안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일본 동경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표 1〉 일반적인 사항

변인	구분	N(%)
성별	남자	29 (9.2)
	여자	286 (90.8)
가족수	4人以下	137 (49.4)
	5인	90 (28.8)
	6인 이상	68 (21.8)
	평균	4.7인
가족형태	핵가족	214 (69.3)
	확대가족	95 (30.7)
주생활근거지	가족과 동거	216 (68.8)
	가족외와 생활	98 (31.2)
주거형태	독립주택	249 (81.1)
	공동주택	58 (18.9)
평수	30평 이하	42 (26.6)
	31~50평 이하	58 (36.7)
	51평 이상	58 (36.7)
거주년수	1년 미만	14 (4.7)
	1-5년 미만	40 (13.9)
	5-10년 미만	48 (16.9)
	10년 이상	199 (64.5)
	평균	13.6년
주택소유형태	부분임대	11 (3.6)
	집전체 임대	36 (11.9)
	자가**	237 (78.5)
방소유형태	혼자 사용	272 (96.5)
	공동 사용	10 (3.5)

\* missing value에 의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 음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함

평균거주년수는 13.6년으로 현재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을 한 상태이다.

집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78.5%로 가장 많았고, 조사대상자의 방의 소유형태는 대부분 혼자쓰고 있었다(96.5%).

## 2. 과거·현재·미래의 주택유형을 비교

과거에 경험했던 주택유형이 현재의 주택유형에 관계가 있는지, 또한 현재의 주택유형이 앞으로 희망하는 주택의 유형에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2).

〈표 2〉 과거·현재·미래의 주택유형 비교  
N(%)

종속변인	독립변인	현재의 주택유형		
		독립주택	공동주택	계
이사로기 전의 주택유형	독립주택	155 (75.2)	21 (40.4)	176 (68.2)
	공동주택	51 (24.8)	31 (59.6)	82 (31.8)
	비 고	$x^2 = 23.269^{***}$		
앞으로 원하는 주택유형	독립주택	229 (95.0)	41 (73.2)	270 (90.9)
	공동주택	12 (5.0)	15 (26.8)	27 (9.1)
	비 고	$x^2 = 26.146^{***}$		

\*\*\*P<.001

그 결과, 현재 독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독립주택에(75.2%), 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과거 공동주택(59.6%)에 거주했던 비율이 높았다(P<.001).

그리고 앞으로 원하는 주택유형은 현재 독립주택(95%) 및 공동주택(73.2%)에 사는 사람 모두 독립주택을 선호하고 있었다. 즉, 대학생들은 독립주택을 선호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미래 주택의 대표적인 형태가 공동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거주자의 요구와 상반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의 공급될 주택유형 결정 시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 3. 현재의 주택에 거주하는 이유

현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표 3)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모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20.8%)", "나와 형제의 학교문제(17.8%)"의 항목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순위의 항목이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선행연구(윤정애, 1993)와 한국 대학생들의 실태조사와 같은 결과(정미란 외, 1997)를 보이고 있다.

〈표 3〉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이유

N=298

순위	항 목	N (%)
1	부모님의 선택 때문에	62 (20.8)
2	나와 형제의 학교문제	53 (17.8)
3	상속된 주택	37 (12.4)
4	교통의 편리성	35 (11.7)
5	현재 주택의 생활편리	31 (10.4)
6	기타	10 (9.1)
7	부모님의 직장	20 (6.7)
8	이사의 경제적 여건 부족	18 (6.0)
9	공기와 주변환경의 쾌적성	15 (5.0)

이는 한일 모두 대학생들은 주거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현실성이 없어 주거선택이 자기주체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 4. 주택 이상상

대학생의 주택 이상상 〈표 4〉에 대해 살펴 보기 위해, 14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일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전체 93.6%가 “집은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써 생각하고 있으며, 71%가 “집을 가족의 단란장소”로써 생각하고 있다. 이로써 대학생들은 주거를 심신의 피로를 푸는 곳이며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주택 이상상 N(%)

항 목	Yes
반드시 내 집을 마련	86 (27.7)
세를 살더라도 집 살 돈을 다른 곳에 투자	25 (8.0)
세를 살더라도 마당 있는 집 선호	98 (31.1)
세를 살더라도 자가용 소유를 희망	8 (2.5)
양육보다 전통가옥 선호	75 (23.8)
같은 지역 거주를 희망	175 (55.6)
생활주기에 따라 이사를 희망	172 (54.8)
시골보다 대도시 선호	124 (39.5)
시가지보다 교외에서 거주를 희망	120 (38.2)
주거보다 취미·레저에 투자	131 (41.7)
집을 잡자는 곳으로 규정하는 의식	44 (14.0)
유행에 따라 실내장식 변화를 희망	123 (39.2)
집을 가족의 단란장소로 생각	223 (71.0)
집을 심신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생각	293 (93.6)

#### 5. 주거의 기능

주거의 기능 〈표 5〉에 있어서 「보건·휴식의 장소로서의 기능」이 1순위를 나타낸 것과 「가족의 단란과 화합의 장소로서의 기능」이 2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이상상에서 나타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장소」와 「집은 가족의 단란장소」로 생각하는 의식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한국에 있어서의 실태조사(정미란 외, 1997)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 주거의 기능

순위	항 목	N(%)
1	보건과 휴식의 장소	164 (52.9)
2	단란과 화합의 장소	93 (30.0)
3	가족 보호의 장소	24 (7.7)
4	부부생활과 자녀양육의 장소	22 (7.1)
5	생업의 장소	3 (1.0)
	기 타	3 (1.0)
6	가사노동의 장소	1 (0.3)

#### 6.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공간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공간 〈표 6〉은 거실(45.1%)→부엌(18%)→화장실(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은 방, 화장실, 부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대학생들의 주거의식에서는 방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활행위를 생각하여 공간을 개실공간과 가족 공동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본의 대학생들은 각 개실 보다 가족이 사용하는 공간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주택 이상상과 주거 기능의 항목에 있어서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표 6>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공간

순위	공간	N(%)
1	거실	138 (45.1)
2	부엌	55 (18.0)
3	화장실	35 (11.4)
4	큰방	30 (9.8)
5	식당	12 (3.9)
6	욕실	10 (3.3)
7	마당(발코니)	6 (2.0)
	마루	6 (2.0)
8	현관	4 (1.3)
	작은방	4 (1.3)
9	중간방	3 (1.0)
10	창고(수납공간)	1 (0.3)
	응접실	1 (0.3)
	차고(주차장)	1 (0.3)

7. 주거선택시 고려점

대학생 자신들이 주택을 선택할 때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고려할지를 살펴보기 위해 13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식 측정을 하여 요인 분석 <표 7>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성 요인], [실외환경 요인], [편리성 요인], [생활환경 요인], [근린환경 요인] 으로 명명한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요인의 전체 설명량은 82.0%이다.

이 결과로 일본 대학생들은 주거선택시 경제성을 가장 고려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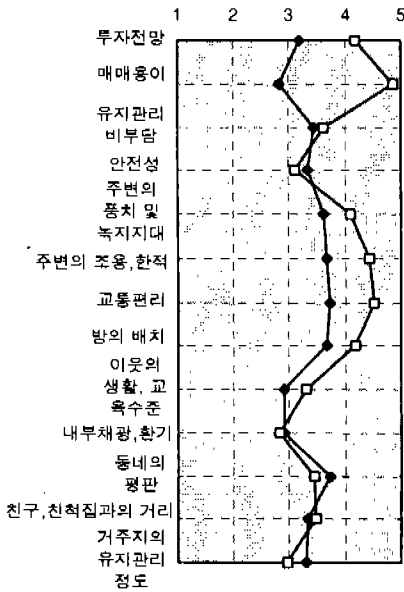
주거 선택시 고려점과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현재의 주거에 대한 만족정도를 5점 리커트식 측정을 하였다. 그 결과를 고려정도와 함께 평균치 profile <그림 1>을 그려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고려정도 보다 낮으며, [생활환경 요인]과 [근린환경 요인]에서는 그 차이가 적었다. 또한, “매매용이”

<표 7> 주거선택시 고려사항의 요인분석

요인	평가항목	요인부하량					공통성	요인명명
		I	II	III	IV	V		
I	투자전망	.941	.039	.040	.141	-.030	.765	경제성
	매매용이	.921	-.020	.186	-.063	.025	.910	
	유지관리비 부담	.653	.205	-.045	-.061	.539	.866	
II	안전성(방법)	-.097	.839	-.188	.104	.539	.759	실외환경
	주변의 풍치 및 녹지지대	.007	.826	.114	.179	-.021	.765	
	주변의 조용함·한적함	.310	.749	.203	-.010	.192	.717	
III	교통편리	.006	.057	.891	-.142	.136	.828	편리성
	방의 배치	.144	.018	.878	.159	.106	.823	
IV	이웃의 생활·교육수준	.009	.018	.101	.911	-.073	.873	생활환경
	내부의 채광·환기상태	.180	.044	.221	.796	.175	.880	
V	동네의 평판	-.059	.349	.026	-.164	.751	.744	근린환경
	친구·친척집과의 거리	.058	.387	.295	.519	.693	.846	
	거주지의 유지관리 정도	.535	-.078	-.318	.248	.642	.866	
	(동네청소, 이웃집의 노후정도)							
	고유치	3.71	2.13	1.87	1.62	1.33		
	설명변량	28.6	16.7	14.8	12.5	10.3		
	누적변량	28.6	44.9	59.3	71.7	82.0		

항목은 고려정도가 대단히 높은 반면 만족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대학생들은 경제성을 중시한다는 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내부채광·환기”의 항목은 고려정도와 만족정도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안전성”과 “동네 평판”, “거주지의 유지관리 정도” 항목은 고려정도 보다 만족정도가 높았다.



◆ 만족정도 □ 고려정도  
(그림 1) 주거선택시 고려와 만족정도의 평균치 프로파일

#### IV. 결 론

이상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의 주거문화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의 하나로서 일본에 있어서 앞으로 주거문화의 주체가 될 대학생들의 주거의식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본 대학생들이 원하는 주택유형은 독립주택이 많았다. 이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한일 양국 모두 미래의 수요자들이 지향하는 주택유형을 고려한 공급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독립주택의 대량 공급이 어렵다면 공동주택에서도 독립주택의 요소를 도입하는 예를 들어, 실내정원이나 각 개호를 이어주는 복도를 골목길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등의 디자인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일본 대학생들은 각 개실 보다는 공동생활 공간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확보와 각 가족원이 다양한 생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동공간에서의 설비계획에 유념하여야 하겠다.
3. 일본 대학생들은 주택의 [경제성 요인] 즉, 투자전망, 매매용이,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주거경제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 주택금융 제도의 정비, 주택시장의 체계적인 정보화 등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주영애(1986), 도시주부의 주거에 관한 가치관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성희(1983), 주거 가치관에 따른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정애(1993), 청년기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미란, 안옥희, 김재경(1997), 대학생의 주거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50주년 기념 학술 발표대회.

